

펄프종이기술이 만난 제지인

한국제지연합회장으로 제지업계를 대표하는

태림P&P 이복진 사장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라는 자리는 비견할 수 없는 권위와 힘을 지닌 화려한 자리이지만 권위의 상징인 CEO 왕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제지업계 CEO 가운데 태림P&P 이복진 사장은 아마도 가장 무거운 관을 쓰고 있는 분이 아닐까? 그 이유는 태림P&P의 회사규모에서, 통솔하고 있는 업체의 수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대표는 한국제지연합회 수장으로, 한국펄프종이공학회 부회장으로서 크게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복진사장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제지를 전공한 기술인 출신일 뿐 아니라 펄프종이기술에 본인의 석박사학위논문 발표한 제지연구인으로, 또 현업에 종사하면서 학회총회의 초청강연연사로, 기술교육의 강사로 활약한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펄프종이기술은 땀땀한 일정으로 무더위조차 느낄 겨를이 없는 이복진대표를 찾았다.



태림P&P 이복진 사장

펄프종이기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 자리에서 뵙습니다. 2003년도에 인쇄용지분야 좌담회에서 뵈었으니 벌써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회원이 사장님의 경력을 알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복진: 네, 다시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984년도에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제지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한국제지에 입사해서 16년간 연구소, 품질 관리, 생산관리, 생산팀 및 영업지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1991년도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다시 캐나다 펄프제지연구소(PPRIC)에서 1년간 Visiting Scientist로 Post-Doc. 과정을 마쳤습니다. 2000년도에 특수지 생산업체인 한솔파텍으로 옮겨서 2003년 말까지 공장장과 연구소장을 역임했고, 2004년 초에 국일제지에서 중국에 투자한 특수지 생산업체인 국일제지장가항유한공사에서 총경리(CEO)로 2012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후 장가항국일제지를 한국제지가 인수하게 되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CEO로 근무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제지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 2020년도에 라이너지 생산업체인 현재의 태림페이퍼와 태림포장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가 제지산업에서 일한지 만40년이 되는 저로서는 뜻깊은 해입니다.

펄프종이기술: 간략한 소개 말씀만 들어도 정말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경력을 지닌 것을 알겠습니다. 근무하신 회사의 다양성에서 제지경력이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지종에 폭넓은 경력과 경험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40여년간 인쇄용지, 특수지, 산업용지 등 다양한 지종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제지경험의 폭을 넓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복진: 한국제지는 인쇄용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지도 생산하는 회사이고, 그 당시 제지기술 수준으로는 다양한 지종 개발 및 생산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한국제지에 근무하면서 중성초지기술, 고농도 도공기술, 온머신코팅 기술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제지는 인쇄용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지 생산기술을 선도하는 회사여서 다방면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솔파텍은 특수지 전문생산 제지사로 다양한 색지(color paper), 감압지(NCR지), 감열지(Thermal Paper) 및 high bulk지 등 다양한 특수지를 생산하는 국내 특수지 생산 1위의 회사여서 특수지 생산기술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일제지장가항은 박엽특수지를 생산하는 제지사로서 스테인리스스틸 간지, 각종 박리지, 담배갑지, Post-it 원지 등 다양한 특수지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도 중국 내 특수지업체로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태림페이퍼는 골판지 원지를 비롯한 산업용지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저는 인쇄용지, 특수지 및 산업용지 전 분야의 지종을 생산하는 회사에 CEO로 근무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용지 분야로는 위생용지 분야를 제외한 전 용지 분야에서 배울 기회가 있었으니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위생용지 분야에서 언젠가는 일할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지나친 욕심이겠지요.

펠프종이기술: 대부분 제지기술인들이 전문지종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 대표님은 그야말로 제지기술의 팔발미인(?)이신 듯 합니다. 오랜 기간 제지업계에 근무하시면서 보람있었던 일이 많으셨을텐데... 그 가운데서도 기억에 남는 일을 몇 가지 소개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어려움을 나누었던 동료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복진: 모든 업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난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돌파해내면 보람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제지에 근무하면서 중성초지기술 개발과 농도 도공기술 개발을 주도하여 한국 제지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크게 느꼈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4-head 더블코터를 성공적으로 시운전하고, 거기서 생산된 더블아트지로 해외영업팀과 함께 미국시장을 개척했을 때의 성취감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솔파텍에서는 국내 최고의 연구팀과 함께 다양한 특수지를 연구하고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만년 적자 회사였던 한솔파텍을 흑자 회사로 그리고 한동안 가장 수익성이 좋은 회사로 탈바꿈시킨 것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국일제지장가항 회사는 2004년 건설되었으니 금년이 가동한지 20년 된 회사인데 한국에서 투자한 중국 내 유일한 제지회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경영이 되고 있는 이 회사의 기본 골격과 기초를 제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지산업이 설비산업이긴 합니다만 좋은 인재가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한국제지, 한솔제지, 국일제지장가항 등의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동고동락 했던 후배 직원들이 현재 여러 제지업계에서 충추적 역할을 하고있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일이 연락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항상 저와 동고동락했던



많은 분들께 감사한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더욱 발전하시고, 배전의 노력으로 우리 제지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태림페이퍼와 태림포장에 근무하면서 이들 회사를 산업용지 분야에 있어 국내 최대, 최고의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펠프종이기술: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이시라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어려웠던 기억도 있을까요?

이복진: 물론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지나고 나면 보람된 일이 더 많습니다. 한솔파텍에 근무할 때는 계속된 누적 적자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전 임직원이 위기의식으로 필사의 노력을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가 회생하였을 뿐 아니라 좋은 회사로 변화되는 경험은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일제지장가항 회사는 정말 아무런 기반도 없는 중국의 별판에 공장을 건설하는 일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그것도 타국에 그린필드 밀을 세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 후 시장개척은 또 다른 아니 더 큰 난관이었습니다. 사실 초기 계획은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한국 본사에서 영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곳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본사에 의지해서 한국으로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건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된다는 판단하에 중국 내수 시장 위주로 수요처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간의 판시(관계)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국에서 작은 신생해외기업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

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3년간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경영환경이 있었고, 영업팀 중국직원들과 함께 중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시장 개척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전생산품의 80% 이상을 내수 시장에 안정적으로 판매하게 되어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었습니다. 3년 만에 30만km 정도를 달린 자동차는 결국 바꾸게 되었지만요. 지금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펠프종이기술: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회사 임직원이나 학회 회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업계에 발을 디딘 후 롤모델로 삼고 싶은, 혹은 롤모델로 생각한 분이 계실까요?

이복진: 제가 이렇게 제지회사에서 나름대로 오래 일하게 된 것은 물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지회사에 추천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신동소교수님입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지도교수님이셨구요.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2분의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제지에서 제상사로 계속 지도를 해주셨던 강홍사장님이 계셨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한솔파텍의 대표이사셨던 이봉훈대표님입니다. 두 분의 지도와 도움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께는 지금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분을 통해서 후배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게 되었고요.

펠프종이기술: 요소요소에서 이대표님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셨다니 정말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인재들의 제지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젊은 세대에게 제지산업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쇠퇴하는 산업은 없습니다. 다만 쇠퇴하는 기업이 있을 뿐입니다.”

이복진: 어떤 산업이든지 발전기와 성수기 그리고 쇠퇴기를 건게 됩니다. 한국의 제지산업이 정점을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인재들이 제지산업에는 미래성장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제지산업을 기피하게 되면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쇠퇴하는 산업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쇠퇴하는 기업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제지산업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잡는 제지회사는 지속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지기술인을 양성해서 지속성장하는 제지회사에 공급을 하고 제지회사는 그 비전을 제시해서 종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지인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목표로 노력해야 합니다. 제지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제지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제지산업이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바꾸고 제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야 선순환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펠프종이기술: 사장님께서 학회에 연구논문투고, 학술 발표, 기술교육, 특강 등을 통해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학회활동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복진: 학회 회원으로서 그리고 부회장으로서 학회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회는 산업계와 학교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학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계는 학회를 통해서 제지기술인을 양성하고 학회가 산업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지연합회장으로서 제지회원사를 대표하여 학회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회가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펠프종이기술: 제지업계에 종사하는 분 가운데 박사학위를 지니신 분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위소지자로서 경험에 비추어 석박사를 취득한 후속세대가 제지산업계에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보람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에서 습득한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복진: 저는 제지회사에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부터가 공부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업무가 배움의 과정이 되고 결국 그것이 내가 평생 직장생활을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하게 되었고, Post-Doc.과정으로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학위를 받게 되면 학교



교수직을 하게 되지만 평생 학습의 과정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바탕 하에 실무 경험이 결합되면 훨씬 더 확고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석박사 과정에서 많은 이론을 공부하고 실무 과정에서의 기술이 접목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커져서 개인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종이를 사랑하는 제지산업의 기술 인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펄프종이기술: 태림피앤피에 관해서도 질문이 많은데... 위낙 회사 규모가 커서 질문드리기도 어렵군요. 포장이 제지산업과 직결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태림에서는 이 분야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요?

“태림은 압도적인 Total Packaging Solution업체로 지속성장에 나갈 계획입니다.”

이복진: 태림은 태림페이퍼에서 골판지원지를 생산하고 태림포장에서 원지를 사용하기에 골판지 원단과 골판지 상자를 일괄생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골판지원단과 상자를 포함하여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판지 원지 생산량은 연간 약 120만톤으로 업계 1위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장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울춘화학 골판지사업부를 인수하였고, 청원공장에 설비를 증설하여 청원2공장을 준공하여 골판지 생산 능력은 약 20%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열사인 태림페이퍼로부터의 원지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기에 일관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원지 공급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에 전주페이퍼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태림페이퍼와 태림포장, 전주페이퍼를 포함하여 2025년도에 매출 2조원과 영업이익 2,000억을 달성하여 압도적인 업계 1위가 되는 것이 중장기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지 및 포장회사로서의 1차 목표가 달성되고 향후 Total Packaging Solution업체로서 지속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태림에서 새로운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만... 향후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분야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진: 신기술과 신제품은 태림 기술연구소가 주관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제지연구팀과 포장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장연구팀은 플라스틱 대체재 연구,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보냉상자 개발, ESG 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친환경, 저탄소 발생용 상자, 저평량 고강도 상자, 고중량포장상자 등 기능성 상자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지연구팀은 이러한 상자 개발에 적합한 원지의 개발과 플라스틱 대체용 포장용지 및 골판지 원지 이외의 지종 전환도 고려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주페이퍼를 인수했기 때문에 전주페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지종을 다양화시키는 연구도 곧 시작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골판지 원지 뿐만 아니라 포장용지, 신문지, 인쇄용지 및 일부 특수지 영역까지 지종을 확대하고 다양화시켜서 국내 최대 종합제지업체로 발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제지연합회 수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 오고 계신데, 특히 학회로서는 회장님 덕분에 두 기관간의 유대가 공고해 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지연합회장으로서 각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지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대응창구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복진: 제지연합회는 회원사인 제지회사들이 지속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최근에 탈플라스틱 관련 친환경 이슈가 제지회사로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지 산업의 친환경성이 홍보되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제지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바로 잡고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대정부 측면에서는 정책과 관련하여 제지산업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각종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사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가능한 규제 완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지산업이 결코 쇠퇴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되도록 제지인 모두가 힘을 모으는데 제지연합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펄프종이기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각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복진: 제지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산학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기술 개발과 기술인재 양성 및 확보에 협력해야 하는데 펄프종이공학회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지연합회와 펄프종이공학회의 협력과 상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지연합회에서는 펄프종이공학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체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은 인터뷰 기회를 주신 펄프종이공학회 김진두회장님과 이학래편집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펄프종이공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답자: 펄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